



참회에서 존경으로



윤제학 본지 논설위원

언제부터가 우리 사회에 상생(相生)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 '서로를 살린다는 것',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러나 이 말은 '상극(相戩)'이라는 말과 이란성 상생의 관계다.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의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생을 말했다. 65일 간, 세 걸음에 한 번 절로 800리 길을 이어온 그 거룩한 참회의 몸짓에 상생이라는 말이 과연 온당한 걸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상생은 성립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빚지는 관계다. 기생까지는 아니어도 편리공생(便利共生)의 관계인 것이다. 자연이 인간으로부터 덕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조건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할 관계일 뿐이다.

새만금을 앞에 둔 상생 운운에는 '자연'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누구와 누구의 상생인가. 새만금을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삼보일배단과 정부 혹은 대통령·마침내 대통령이 백지화를 선언하면 그것이 상생의 선언인가? 결코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애당초 백지화를 선언할 자격이 없다.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는 인간의 끝 모를 탐욕에 대한 최소한의 참회였다. 여기서 그치고 만다면, 그것마저 참회를 위한 참회로 만들고 만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자연에 대한 존경을 보이는 일이다.

몸은 떠났지만, 복지관 사랑은 여전



5년 재임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복지관을 서울시 최우수복지관으로 이끌었던 각우스님. 지난 3월 퇴직금 전액을 복지관 후원금으로 내놓는 등 '아름다운 퇴임식'을 한 스님이 이번에는 병마와 싸우는 젊은 불자를 위해 병원비를 쾌척했다. 스님은 현재 아산병원에서 자궁 종양과 신장부서 중인 홍 모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끝까지 희망의 불씨를 놓지 말라며 복지관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다는 것.

장군숙매

주지스님 입김에 신도회 임원선출 OK?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사찰신도회운영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신도회 임원 선출과정에서 주지스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8.5%에 달했다. 신도회와 주지스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스님이 신도회 임원선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율적인 신도회 운영을 통해 사찰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부대중의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 인류는 46억년 지구역사 중 수 만년의 짧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생태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개발해 지구전체의 환경을 파괴해 왔다.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인류의 첫 번째 노력으로는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있다. 82개국 대표들과 유엔기구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브라질에서 개최됐고, 작년 남아공화국에서 '지구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계속돼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점을 고사하고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환경을 파괴시켜 '녹색문맹' '환경소외국'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시현상이 크게 한 몫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했던 시절도 아닌데 국가시책이란 명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행정상의 제재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불교계 첫번째 공약은 어디로?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전담부서로서의 소임보다는 개발의 면죄부를 주는 건교부의 들러리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북한산 관동도로,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전성산 관동터널문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부서가 변명 삼는 이유는 항상 동일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집행된 비용이 아까워서 사

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계획을 뺀히 알면서도 정책을 고수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역사를 악행으로 도배하는 일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스님은 삼보일배를 통하여 새만금사업의 위험성과 환경생태계의 중요성을 온국민들에게 알렸고, 조계종은 노무현 정부가 선거운동 당시 공약한 북한산관동도로

와 천성산·금강산 관동터널 사업의 재고와 수정방안의 실천을 거듭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공약을 실행하기는커녕 불교계에 양해를 구하며 공약 불이행 명분 찾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으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몇몇 실무자들만 바뀌는 기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사업계획조정 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 1년 이상의 조사와 결과 예측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사안 결정에 두 달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줌으로써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마무리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환경과 문제를 의식부족과 정책부재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이 불교계가 이 시대에 갖는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교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힘을 모아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월,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불교계의 노력과 활동을 기대해 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떨빈제 폐지' 찬성과 반대

'질서' '자비' 다 충족하는 길 모색

결론부터 말하자면 떨빈 징계는 필요하다. 어느 집단이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유지가 힘들어진다. 떨빈 징계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떨빈 징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교단을 어지럽히고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법의 준엄함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각스님

조계종 법규위원

떨빈 징계가 자비문중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자비문중과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 법이란 모두가 자율적으로 책임



법타스님

은혜사 주지

로잡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종단은 하나의 집단이고, 따라서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하다. 종책이나 종단의 대외사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

비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징계 필요

과 의무를 다 할 때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도 법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법질서와 불교의 이념은 전혀 다른 측면이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떨빈 징계의 관련해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98년 징계의 경우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측면도 있고, 또 징계를 해놓고 자꾸 사면을 거론함으로써 종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떨빈 징계를 신중히 하면서도 비정치적 논리에 입각해 실행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징계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화합중요, 제적강화 등 불교이념 맞춰야

들이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떨빈 징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면 얘기가 나오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면 얘기가 계속해 나오는 것은 자치 종헌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징계를 하고 필요에 의해 사면을 할 바에는 이에 떨빈 징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현재의 종헌·종법은 지나치게 사회법 흉내를 내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모든 징계가 계율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 계율에 떨빈이라는 징계는 없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인 이상 나도, 남도 깨우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떨빈제도문제 '종특위'에서 다룰듯
종헌 명문화는 62년 통합종단 이후

'떨빈 징계'가 조계종 종헌에 명문화된 것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과 함께 종헌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러나 당시에는 '떨빈'이 아닌 '제탈도첩'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그러다가 94년 종단 개혁 때 종헌이 개정되면서 '제탈도첩'을 '떨빈'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한다'는 의미는 같다. 떨빈 징계의 유래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 국가가 승려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 즉 '도첩제'가 시행됐고, 제탈도첩(도첩을 박탈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떨빈'은 최소한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떨빈 징계자 사면이 조계종의 최고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떨빈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떨빈'이 불교의 자비사상과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떨빈 징계 후 사면 필요성이 계속해 대두됨으로써 종헌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구성된 종헌준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종원스님은 "떨빈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Advertisement for '당신에게 행운을...' (Luck for you...). Features two dragons and various talismans. Text includes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and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Contact info: 천통정사 복지원 문의: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점 053)986-1354

Advertisement for '남골추모함 안내' (Namgol Chumoham Guide). Lists types of Namgol Chumoham: 연꽃문양 남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남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남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Includes dimensions and contact info: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